

탈식민주의 관점에서의 번역가 고찰 - 청말의 개혁사상가 옌푸(嚴復)의 『천연론(天演論)』 번역 실천을 중심으로*

이 지 영
(한국외대)

1. 서론

19세기 중엽 이후 중국은 체제이완과 외부충격으로 쇠퇴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중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농민운동인 태평천국운동은 청조타도를 표방하며 난징(南京)에 태평천국(太平天國)이라는 새 국가를 수립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청조는 군사적 근대화를 추구한 양무운동을 30여 년 간 펼쳤지만 2차 아편전쟁(1857), 청불전쟁(1884), 청일전쟁(1894), 8개 연합국과의 전쟁(1900)에서 연전연패했다. 패전의 결과로 청조는 문호개방과 막중한 배상금을 강요당하며, 제국주의 열강에 철도부설권 및 광산개발권 등 여러 이권을 넘겨주는 동시에

* 이 논문은 2020년 정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5A17088270)

군사, 경제상의 요지를 조차지로 제공하였다. 민중의 생활은 국가재원이 고갈된 청정부의 가혹한 세금 징수와 토지수탈로 도탄에 빠졌다.

청일전쟁은 근대세계에서 중국의 반식민지화를 확정하는 일대 획기가 되었다. 1895년 4월, 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하관(下關) 조약은 청조가 마지막 조공국 조선의 ‘독립’을 인정하고, 랴오둥(遼東) 반도와 타이완(臺灣) 등을 일본에 할양하며, 2억 냥의 배상금을 일본에 지불한다는 것을 조인하였다(양일모 2008: 31). 기타 제국주의 열강들은 거액의 배상금을 일본에 지불하기 위해 거액의 차관을 받아야 했던 청조의 ‘약점’을 이용해 대륙의 여러 조차지에서 면세 특권을 누리며 청조의 세수(稅收), 외국무역, 교통운수를 장악해갔다. 20세기를 목전에 둔 세기의 전환기, 중국은 더 이상 천하를 호령했던 과거의 중화제국이 아니었다. 중국은 제국주의 열강들이 이권의 획득과 세력권의 확대를 위해 분할 경쟁하는 반식민지 상태의 ‘동아시아의 병부(病夫)’로 전락했다.

근대 중국의 개혁사상가 옌푸(嚴復)가 영국의 과학자 헉슬리(Thomas Henry Huxley)의 『진화와 윤리(Evolution and Ethics)』를 저본으로 삼아, 『천연론(天演論)』으로 번역한 시점은 바로 이 무렵이었다. 옌푸는 당시 중국이 직면한 존망의 위기가 과거 중국사에서 되풀이되던 ‘북방 오랑캐’의 침입과 본질적으로 다른, ‘서구 근대 문명의 충격’임을 완전히 인식하고 있었던 예외적 지식인이었다. 국토가 분할당해 나라가 망한다는 망국의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동시대 지식인들도 ‘중국의 문제점 찾기’ 작업에 동참했지만, 옌푸의 지식인으로서의 면모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서구 근대사상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이들과 구별된다. 옌푸는 중국 사회의 근본적 문제점을 과학 기술이나 전쟁 무기의 열세가 아닌, 인간 사회의 운행 원리에서 찾았고 그 결과 서구의 사회진화론에 착목하게 된다. 서구의 사회진화론을 보편적 공리(公理) 차원에서 번역을 통해 수용한 『천연론』은 그의 이러한 지적 고민의 산물이라 하겠다. 1898년 6월, 번역 초고를 완성한 후 약 2년간의 자문 및 수정 작업을 거친 『천연론』이 공식적으로 간행되었다. 『천연론』은 중국 사회를 개혁하고자 지식인층에게 외부세계에 대한 인식의 변환을 촉구하면서 생존경쟁 및 자연도태란 사회 운행 원리를 제시하였다. 이는 중국이 당면한 존망의 위기와 부합되어 엄청난 파급력을 일으켰다.

옌푸의 번역 작업은 언어 기호의 전환 및 의미의 등가나 사회문화적 중재 과정이란 기존의 ‘보편적인’ 분석 틀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옌푸의 『천연론』

번역 기획 및 실천에 집중하면, 애초부터 번역가 개인의 강한 반성적 사유와 주체적 목적의식이 번역 실천에 깔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고는 이에 주목하여 엔푸의 번역 실천 특성을 체계적인 이론과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연구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우선 번역 저본『진화와 윤리』와 번역서『천연론』의 내용을 비교 분석해보고, 엔푸라는 번역가의 의도와 기획이 반영된 『천연론』의 서문이나 해설 등 곁텍스트(paratext)를 고찰한 후 엔푸의 정치적 입장 및 사회적 주장을 살펴볼 수 있는 전기 기술 자료를 분석해본다. 또한 이것의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엔푸의 『천연론』번역 실천을 탈식민주의 맥락(Translation in postcolonial context) 속에서 서술해본다. 본 연구는 근대 중국의 번역가 엔푸의 번역 실천 특성을 체계적인 이론과 함께 설명해보는 시도로서, 그 번역 작업에 대해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하여 복잡다단한 번역현상에 대해 심층적인 이해를 제고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 하겠다.

2. 이론적 배경

2.1 탈식민주의 맥락에서의 번역(Translation in postcolonial context)

식민주의(Colonialism)는 힘이 센 나라가 무력으로 자신보다 약한 나라의 땅을 침략하여 정복하고, 그곳의 물적, 인적 자원을 약탈하여 자국민을 이주시켜 지배하고 통치하는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이념을 일컫는다. 이는 약육강식을 근간으로 삼는 차별적 이데올로기이다(박종성 2014: 4). 식민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식민지를 유지하기 위해 역사와 논리를 왜곡하며 식민주의를 정당화한다. 예컨대, 식민화는 식민지 발전을 위한 ‘문명화’ 및 ‘근대화’ 작업이라 주장하고, 식민지의 피지배 민족을 열등한 ‘야만인’으로 상정하여 식민적 권위를 정당화하는 식이다. 하지만 이는 모두 원료공급지 및 상품시장으로서의 식민지를 보유하고, 정치적 종속국으로서의 식민지에 대한 차별적 지배를 유지하기 위한 궤변일 뿐이다.

탈식민주의(Postcolonialism)는 피정복자의 입장에서 식민 지배의 부당성과 반식민 저항의 필요성을 알려야 하는 분명한 목적을 지닌다. 따라서 식민주의

의 여러 양상을 다각도로 연구하고 식민주의 인식 체계가 어떻게 식민지의 토착성에 내재화되었는지를 밝혀내가면서 식민적 잔재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주체적 담론을 모색한다(최성희 2015: 211-212). 바꾸어 말하면, 탈식민주의는 억압과 착취를 낳는 지배 담론을 해체 혹은 전복시켜서 지배권력의 횡포에 제동을 걸어 종주국과 식민국 사이에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부당함과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한다. 인식체계의 붕괴에 초점을 맞추면 이는 곧 식민주의 의식을 탈식민화시키는 대응담론이라 할 수 있다(박종성 2014: 7-8).

이러한 탈식민주의와 번역학의 핵심 접점은 권력의 불균형이다. 탈식민주의 맥락에서의 번역 관련 초기 연구들은 불균등한 권력 관계에서 발생하는 번역을 조명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상위 권력의 문화적 영향에 주목해왔다. 이 과정에서 번역은 대체로 서구의 식민주의 이데올로기나 지배 담론이 관철되는 문화적 행위로 기능해왔다. 예컨대, 니란자나(Tejaswini Niranjana)는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식민주의 맥락에서의 번역 문학은 식민 지배의 헤게모니를 널리 전파하는 담화 라고 지적한다. 또한 식민 열강이 동양의 이미지를 개조하기 위해 영어로의 번역을 악용했으며, 번역 행위가 식민주의에서 기능하는 비대칭적 권력 관계의 틀을 재차 설계하였다고 주장한다(Munday 2009: 189-191).

같은 맥락에서 베누티(Lawrence Venuti) 역시 자국중심주의 및 제국주의에 동조하는 태도에 기반한, 영미문화권의 “자국화 번역(domesticating translation)을 비판한다. 자국화 번역은 원천텍스트의 이국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목표문화권에서 익숙한 목표 언어의 문체를 의식적으로 사용하는데, 이는 대체로 원천텍스트의 문체적 특성이나 문화적 특색이 전반적으로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베누티는 영미문화권에 만연한 이러한 자국화 번역이 일종의 폭력 행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번역의 실천이 비서구 타자의 언어와 문화적 특성을 무시하고 앵글로 아메리카의 문화 가치만 보존하는, 일종의 문화 억압 수단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Venuti 1995: 8-29).

탈식민주의 맥락에서의 번역 연구에서 권력 작용으로서의 번역이 중점적으로 다뤄진 이후에는 정치사회적 행동주의자로서의 번역자의 주체성과 가시성이 부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점에서 번역자는 일반적으로 번역 실천을 통해 지배 담론을 비판하고 대항 담론을 제시한다(Cheung 2010; Dubbati and Abudayeh 2017; Gamal 2012; Sanchez 2011; Tymoczko 1999; Tymoczko

2007). 번역자 스스로가 담론적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주체가 되어 자신이 추구하는 담론을 번역 실천의 중점에 놓는 것이다. 이는 텍스트의 해체와 재구성으로 나타난다. 전복적 번역 과정에서 번역자가 원천텍스트의 내용을 과감하게 취사선택하고 그것의 구조적 특성 및 의미론적 규범을 과감하게 무너뜨리면서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적극 개진하기 때문이다.

정치사회적 행동주의자로서의 번역자의 주체성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연구는 티모츠코(Maria Tymoczko)에 의해 풍부한 결실을 맺었다고 볼 수 있다. 티모츠코는 그의 저서 『탈식민주의 맥락에서의 번역(Translation in a Postcolonial context)』 및 『번역의 확장, 번역가의 권한 강화(Enlarging Translation, Empowering Translators)』에서 번역과 번역자에 대한 인식을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하면서 탈식민주의 접근법을 추가로 제시한다.

티모츠코에 따르면 탈식민주의 접근법은 번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촉구한다. 탈식민주의 맥락의 복잡한 현실에서 번역은 비교적 균등한 권력 관계 속 이(異) 문화 사이의 중재 과정과 거리가 멀다. 번역가의 번역 실천 목적이 애초부터 특정 정치적 동기나 사회 개혁에 있으므로, 번역은 번역자가 진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특정 지식을 발견하고 특정 담론을 제시하는 전략적 수단이 된다. 번역은 피지배자의 저항 수단으로서, 전략적 목표 하에서 진행되는, 특정 지식 및 가치의 전파 프로젝트로 종종 활용된다. 번역의 정치사회적 역할이 우선순위에 놓이므로 텍스트 전환의 결과물이 아닌 사회적 실천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달라진 번역의 사회적 의미에 따라 번역 실천 역시 정치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없어 보이는 것을 번역하지 않거나 변이시키는 등 독자적인 텍스트 형성 과정으로 구체화된다. 이 경우 번역 실천은 종종 목표문화권의 토착 문화에 통합되는 문화적 행위로 변모하기도 한다(Tymoczko 2007: 192-200).

같은 맥락에서 번역자의 정치사회적 행동주의자로서의 면모가 부각된다. 탈식민주의 맥락에서의 번역은 주로 대항 담론 제시 및 사회 변혁의 수단으로 기능하므로, 이를 활용하는 번역자 역시 독자적인 행동주의자가 된다. 번역자는 불가시적이고 수동적 존재가 아닌, 전면에 나서서 사회적 사명과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적 존재로 거듭난다. 번역이 파생적인 재생산활동이 아닌, 독자적인 생산활동으로 전제되면서 번역자 역시 번역 실천을 통해 자신의 정치사회적 입장을 명시적으로 드러낸다. 이는 물론 자신이 추구하는 정치사회적 담론을 구

축하여 사회 변혁을 위한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다(ibid).

예컨대, 티모츠코는 번역자의 정치사회적 행동주의자의 면모를 20세기 초 아일랜드 번역가들의 문학작품 번역 실천에서 읽어냈다. 20세기 초 아일랜드 번역가들은 조국의 독립운동 및 문화민족주의 부흥을 지원하기 위해 중세 시대 아일랜드 문학작품을 영어로 번역했다. 그들은 번역 실천을 통해 아일랜드 문학작품 속 영웅 캐릭터를 소환함으로써 영국 식민주의자들이 낙인찍어놓은 아일랜드인의 이미지를 전복하려 했다. 그들의 번역 실천은 “아일랜드인은 야만적이고 폭력적이며 게으른 술주정뱅이 라는 식민주의자의 지배 담론을 뒤엎는 목적의 문화적 저항 프로젝트였다. 1922년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기까지, 아일랜드 번역가들은 영국의 식민 통치를 정당화하는데 기여한, 영국의 아일랜드 ‘조롱 담론’에 맞서 싸웠다. 이들은 영국 식민주의자의 압제에 대항하고 아일랜드의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아일랜드 영웅의 전기(傳記) 작품을 취사선택하여 영어로 번역했다. 아일랜드 독립이란 정치적 동기에서 사회적 에너지를 이끌어내고자 번역 실천을 통해 독자적인 정치사회적 행동주의자로서 사회 변혁의 전면에 나서게 된 것이다(Tymoczko 1999: 178-184).

19세기 중반부터 아편전쟁, 태평천국운동, 청불전쟁, 청일전쟁, 무술변법 등 위우내환을 겪으며 청조의 쇠망이 가속되는 상황에서 청말 개명 지식인에게 “자강구국(自強救國)이란 시대적 과제가 부여되었다. 근대 중국의 격동의 시대를 살아간 개명 지식인들은 망국적 위기감 속에서 조국을 구할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하였고, 옌푸 역시 그러한 구국의식에 휩싸인 지식인의 일원이었다. 옌푸는 『천연론』을 위시한 여러 서구 근대사상을 번역을 통해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전에 이미 여러 신문사설 및 논문에서 당시의 중국을 ‘동아시아의 병부’라고 진단하며, 중국에 적합한 치료책과 자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호소한 바 있다. 옌푸는 존망의 위기에 있던 중국을 구하고자 당대의 지식인층에게 적극적인 대응을 호소하기 위해 『천연론』번역에 착수하였다. 본 연구는 옌푸의 번역 실천을 전술한 탈식민주의 맥락에서 고찰하여 『천연론』번역의 사회적 담론 전파 양상을 구체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옌푸라는 번역가의 정치사회적 행동주의자로서의 면모를 조명하려 한다.

3. 옌푸의 번역 실천

3.1 20세기 전환기 근대 중국의 번역 동향

20세기를 목전에 둔 만청의 중국은 제국주의 열강의 심화된 침략공세에 허덕이면서 근대화의 방향을 재설정해야 했던 격동의 전환기였다. 열강과 벌인 잇따른 전쟁에서 국권을 차츰차츰 상실하게 된 청조의 지배층은 19세기 중엽 이후 군사적 근대화를 추구한 양무운동을 지속했다. 서구 열강의 과학기술 및 군사기술을 수용하여 부국강병을 도모하고 왕조 체제인 청조를 보존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외국학교의 설립, 유럽으로의 유학생 파견, 서구식 군사공업 건설, 제철소 및 전보국 등 근대적 인프라 건설, 신식 해군 창설 등의 자강 노력을 통해 정치적 안정을 꾀한 것이다.

하지만 청일전쟁(1894)의 패배로 인해 ‘서양의 겉모습만 모방하려 했던’ 양무운동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 동양 최대의 신식 해군 함대를 자랑하던 북양(北洋) 함대는 일본과의 해전에서 무참하게 수장되었다. 청일전쟁의 패배는 양무운동의 근대화 기획이 수포로 돌아갔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대참사였다. 이는 무엇보다 양무운동의 이론적 기반이었던 “중체서용(中體西用) 론이 붕괴되는 획기적 계기로 작용했다. ‘중국의 정신을 본체로 삼고 서양의 기술을 쓰임으로 한다’는 중체서용론이 전통시기 화이론(華夷論)적 중화질서를 일거에 무너뜨린 청일전쟁으로 인해 더 이상 통용될 수 없게 된 것이다.

전통 시기 내내 ‘동쪽의 키 작은 오랑캐’에 불과했던 일본에게 졌다는 현실은 중국 지식계에 엄청난 심리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근대 중국의 개명 지식인들은 다시 중국의 쇠약 및 서구 부강의 원인에 대해 곰곰이 숙고하기 시작했다. “중국과 열강 사이에 드러난 힘의 우열은 근원적으로 어디서 비롯되었는가를 자문하면서 중국의 지식계는 서양의 실용적인 기술 이외에 학술 사상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서구의 입헌군주제 및 근대사상을 채용하여 부국강병에 진력한 일본에 패했다는 자아 성찰이 생기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서구의 정신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홍석표 2009: 36-39).

이러한 지적 수요를 반영하듯, 청일전쟁 패배 이후에는 서양의 행정제도 및 근대사상이 중점적으로 소개되었다. 중국의 지식계가 서양을 보다 깊게 이해하

기 위해서 번역을 통해 서양의 학술 사상을 보다 많이 수용함에 따라 중국 번역계의 동향 역시 현저하게 변화하였다. 양무운동 시기, 베이징(北京)에 동문관(同文館)이 설치(1862)되어 서구 언어의 교육이 실시되고 서구의 과학 서적 같은 실용 서적 번역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청일전쟁 이후에는 서구의 근대사상 및 사회과학 등 정신문화 관련 서적의 번역이 대거 이루어졌다(王曉丹 2012: 6-7).

즉, 근대중국에서 서양 서적의 번역은 대체로 1900년을 전후로 하여 번역의 주체와 번역대상서적의 특성이 완전히 변화하는데, 양무운동 시기에는 서양의 강력한 군사과학기술의 학습에 중점을 두어 응용과학, 자연과학, 지리학 방면의 서적이 대량 번역되었다. 번역을 주도한 주체는 주로 청 왕실이 개설한 번역기구와 서양인들의 교회 계통이었다. 하지만 번역계의 이런 경향은 1895년 청일전쟁 패배 이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양무운동에 대해 회의하는 풍조가 사회적으로 만연하면서, 서구 서적 번역의 내용은 기술과 제도 등 물질문화 방면에 치중했던 경향에서 사상과 학술 등 정신문화로 옮겨가게 되었다. 또한 이 시기 번역의 사회적 역할도 서양의 근대 사상을 수입하여 국민을 계몽시키고 국가의 자강을 도모하는 것으로 보다 명확해진다(김소정 2008: 260-261).

사회진화론을 다룬 『천연론』의 번역 실천은 청일전쟁의 패배를 계기로 불기 시작한 ‘중국의 근본적 문제점 찾기’ 작업과 그 궤를 같이하며, 서구 열강의 부강의 비결을 서구 정신문화에서 찾으려 했던 서구 근대 사회과학 서적의 대량 번역의 물꼬를 텃다는 점에서 근대적 의의가 크다. 하지만, 대포와 함선과 같은 서구문명의 이기(利器)만을 기계적으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그 배후의 사상적 함의 및 원리를 최초로 체계적으로 번역했다는 점에서 보다 문명사적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김월희 2002: 132-134).

3.2 옌푸의 서양 근대사상 번역 실천

옌푸(1854-1921)는 근대중국에서 최초로 체계적이고 엄밀한 번역 작업을 통해 서구 근대사상을 본격적으로 소개한, 청말의 계몽사상가이다. 그는 서세동점의 근대중국에서 중국의 자강과 보전을 위해 서구 근대사상의 명저를 번역하여 지식인 사대부층을 각성시키고자 하였다.

옌푸는 유년 시절 전통 중국의 여느 사대부 집안의 자제와 마찬가지로 과거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유교 경전을 공부했다. 하지만 그가 12살이 되던 해, 갑작스런 아버지의 죽음과 함께 가세가 기울어 과거 준비를 단념할 수밖에 없었다. 마침 고향에서 가까운 곳에 양무운동의 일환으로 세워진 신식 학교가 있었다. 그는 학비가 면제되고 생활비도 지원해주는 선정학당에 지원했다(양일모 2008: 22-23). 그는 양무과가 창설한 해군전문학교인 푸저우선정학당(福州船政學堂)에 입학하여 약 5년 간 조선(造船) 교과목을 중심으로 최신의 서양과학을 영어 수업을 통해 배웠다. 1877년에는 양무과의 추천을 받아 영국 그리니치 해군대학(Greenwich Royal Naval College)으로 유학을 갔다. 이 시기 그의 임무는 군함이나 조종술 등 해군지식의 학습이었으나, 그의 관심은 영국의 정치, 경제, 법률, 교육 등 사회제도 및 근대사상에 쏠렸다. 따라서 항해 실습에 참가하지 않고 런던 법정으로 ‘출근’한 일이 많았다. 1879년 귀국한 이후에는 북양해군 창설을 위해 톈진(天津)에 설립된 해군학교인 북양수사학당(北洋水師學堂)에서 약 20여 년 동안 근대적 해군을 양성하는 업무에 종사했다(우남숙 2012: 37-38).

옌푸의 인생행로는 중국의 시대적 변화로 인해 급격히 바뀌게 된다. 그는 청일전쟁에서 자신의 동료, 제자, 함대가 무참히 황해에서 수장당하는 것을 보았고, 이어서 자신이 20여 년간 몸담았던 북양수사학당이 8개 연합국의 포격으로 파괴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청일전쟁 이후 옌푸는 언론인이자 번역가로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서구 열강의 부강의 원리와 중국의 총체적 난관 극복 방안에 대해 오랫동안 궁구한 이후였다. 소수의 선각적 지식인들이 옌푸가 소개한 진화론에 상당한 관심을 드러내며 지방 학회 및 근대적 언론 매체인 신문 잡지를 통해 청조의 부패한 정치를 비판하면서 수 년 뒤 무술변법(戊戌變法)으로 수렴되는 제도 개혁 중심의 현실 대응책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특히 청조의 정치 체제 개량을 요구하며 형성된 변법파는 일본의 근대화 과정을 참고하여 입헌군주제 채용을 주장하였다. 이들은 나아가 과거제 개혁, 서학을 가르치는 신학교 설립, 상업 장려, 육해군의 근대화 등 총체적 제도 개혁을 추진한 ‘변법관료’로까지 발탁되었다. 옌푸는 강유웨이(康有爲), 량치차오(梁啓超) 등과 같이 개혁을 전면에서 담당하는 정치 관료는 아니었지만 변법의 이론가이자 유신파 지식인

으로 변모하였다. 『국문보(國聞報)』를 창간하여 작금의 멸망지화(滅亡之禍)를 면하려면 고대 중국의 유훈(遺訓)이 아니라 변법유신(變法維新)에 그 길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인간사회의 운행 및 질서형성 원리에 주목했던 옌푸의 『천연론』은 변법운동과 함께 중국의 사상계에 등장하여 변법의 사상적 기반으로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는 당대의 신문과 잡지 매체에 사회진화론 기반의 사회 개혁을 주장하는 여러 시사 논설을 왕성하게 발표하였고, 서구 근대사상을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여러 번역서를 열정적으로 내놓았다. 중국이 열강에 의해 과분되는 멸망의 위기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현실 진단 및 대응책 강구를 위해 서구의 근대사상을 체계적으로 중국의 독서인에게 소개하였다. 옌푸의 논문 저술과 번역 실천에는 그 때까지 현실 세계의 급변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했던 봉건관료파 및 양무파의 유교적 지식인에게 위기의 현실을 직시하라는, 정치사회적 메시지가 기본적으로 강하게 담겨 있다. 또한 이러한 객관적인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구망도존(求亡圖存)에 진력해야 한다는 지식인으로서의 망국적 위기감과 구국의식이 배어 있다.

청조의 마지막 15년 동안 옌푸는 여러 신문과 잡지에 「세계 변화의 빠름을 논함(論世變之亟)」, 강함이란 무엇인가(原強), 구망결론(求亡決論), 한유비판(辟韓) 등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설들에는 옌푸의 중국 현실 진단 및 근대화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 그는 작금의 중국이 더 이상 천하의 중심이 아닌 ‘동아시아의 병자’에 불과하다고 진단하고 약육강식의 국제질서 속에서 중국이 살아남으려면 서구 사회를 깊이 인식하고 참고하여 자강구국에 힘써야 한다고 호소하였다(조경란 2015: 65-71). 1895년 직보(直報)에 게재된 세계 변화의 빠름을 논함 논설은 서구의 근본은 그들의 장사 능력이나 천문, 산술 및 증기기관과 무기와 같은 부류가 아닌, 거짓을 거부하고 진리를 숭상하는 학술과 ‘사(私)를 제한해서 “공(公)을 실현하는 정치에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여기서 “사는 주로 사적인 이익을 의미하며, “공은 사익을 제한하여 공익을 실현하는 정치의식의 의미에 가깝다(양일모 2008: 123-125).

전술한 언론 활동과 더불어, 옌푸는 또한 서구의 부강을 이끌었다고 판단한 서구 근대사상 명저들을 선별, 번역하여 쏟아냈다. 1896년부터 1909년까지 옌푸는 헉슬리의 『진화와 윤리』를 『천연론』으로 번역한 것을 필두로, 애덤 스미스(Adam Smith)의 『국부론(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스펜서(Herbert Spenser)의 『사회학연구(Study of Sociology)』, 밀(John Stuart Mill)의 『자유론(On Liberty)』, 몽테스키외(Charles Montesquieu)의 『법의 정신(De L'esprit des Lois)』 등을 번역하여 중국에 소개했다. 옌푸는 이들 사회과학 서적의 번역과 해설을 통해 서구 사회의 선진 경제 사상, 정치 및 법률 이론, 사회 학설, 과학적 방법론, 실증철학 등을 지식층에 전달하였다. 그가 소개한 서구 근대사상의 체계 및 이론은 이후 중국 사회계몽 운동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으며, 특히 『천연론』을 통한 진화론적 세계관은 이후 중국 근대화 과정의 변법유신, 신해혁명, 신문화운동에 사상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옌푸는 이를 통해 근대중국에 처음으로 서학을 체계적으로 번역, 소개한 계몽사상가로 자리잡았다(王秉欽 2011: 65-70).

3.2.1 『천연론』 번역 실천의 주체성

옌푸는 근대중국의 내외외환의 시기를 살아가는 지식인의 복잡한 심정을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토로한 바 있다(양일모 2008: 27-29).

“오늘날 중국이 이렇게 된 까닭은 평소의 학문과 사대부들의 의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지금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지금의 풍속을 바꾸지 않는다면, 관중(管仲)과 제갈량(諸葛亮)이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망국의 위기에도 양무파의 중체서용론(中體西用論)의 사회적 영향력은 여전했다. 양무파는 태평천국운동과 아편전쟁을 겪은 후 19세기 중엽 이후부터 청왕조의 통치를 유지시키기 위해 약 30여 년 동안 군사공업 확장 중심의 양무운동을 벌여 왔다. 중체서용론은 양무파의 기본 이론으로서, 중국의 정신적 가치를 ‘본체(體)’로 삼고 이를 보위하기 위해 서양의 기술을 이용(用)한다는 것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군수 산업화와 상업 진흥은 백성의 자원을 소모시키는 투기와 같다고 공격하는 봉건완고파에 맞서 수십 년간 양무운동을 실행해왔던 양무파였지만 국가 운영에 관한 신념은 봉건완고파와 크게 다를 것이 없었다. 그들의 신념에서 그들의 국가는 수천 년간 그래왔던 것처럼 유교적 가치를 보존해야 했다. 유교적 개인 윤리 및 가족 윤리와 강상(綱常)의 신분제와 봉건군주제는 ‘유교적 도(道)’를 보존하는 성역과도 같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신념의

바탕에는 자연세계와 인간세계를 포함하는 ‘천(天)의 불변성’을 믿는, 유교 전통의 순환론적 역사관이 자리잡고 있었다. 양무파는 중국의 정신과 사상을 본체로 삼는 중체서용론에 얽매어 여전히 중국의 정신상태와 인식능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서양의 과학기술만 제대로 이용하면 작금의 ‘일시적 혼란’은 곧 사라질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이다.

유교적 세계관에서 우주는 보편적 “리(理)를 나누어 받은 만물들이 조화를 이룬 세계로 설정된다. 리는 만물을 지배하는 보편적 원리와 비슷한 의미를 지니며, “도(道)란 형이상학적 개념과 혼용되어 쓰이기도 한다. 도는 기본적으로 세상의 이치이며, 사물의 이치, 도리, 규율로서 초감각적인 것을 가리킨다(김영민 2021: 679-680). 리의 중심을 이루는 조화, 질서, 절제, 중용의 공리(公理)의 세계관에서 세계는 조화를 향해 가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곳이며 인간을 포함한 만물은 특수한 역할을 부여받아 자신의 소임을 다함으로써 세상의 조화에 기여한다. 『대학(大學)』의 유명한 구절인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에서 평천하는 단순히 인간세계가 정치적으로 화평을 누리고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가 천지자연의 질서에 위배되지 않은 채 조화로운 세계를 이루고 있는 상태까지 지칭한다. 따라서 이 ‘조화와 불변의 세계’에서 혼란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곧 지나갈 일시적 혼란일 뿐이다. 세계는 원래 “한 번은 태평해지고 한 번은 혼란해진다”는 “일치일란(一治一亂)이 순환하는 곳이기 때문이다(김월희 2002: 133-139).

하지만, 작금의 중국의 쇠망에 대한 옌푸의 진단은 달랐다. 청년 시절 서양에 유학하여 서양 사회를 남달리 세심하게 관찰했고, 귀국 후 스펜서의 『사회학연구』를 시작으로 서양 근대사상 서적을 탐독했던 옌푸는 서구 문명에 대해 열린 성찰을 할 수 있는 내공을 배양할 수 있었다. 그는 중국과 서양을 비교하는 그의 사유 방법을 통해 서양 부강의 근본적 원리를 탐구하기 시작했다. 오랜 궁구 끝에, 서양의 부강은 단지 과학기술과 경제발전로 인해 달성된 것이 아니고, 서양의 사회를 운행하는, 보다 근본적인 구성 원리에서 비롯되었다고 진단했다. 그가 판단하기에, 중국과 대비되는 작금의 서양 사회는 진리와 과학적 방법론을 추구하는 학문체계와 “사(私)를 제한하여 “공(公)을 확보하는 정치체제를 갖추고 있었으며, 개인이 자신의 능력과 에너지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경쟁의 자유가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세계는 전통 중국의 순환론적

시간관 속의 ‘조화의 세계’가 아닌 단선적 시간관 속의 ‘경쟁의 세계’였다. 즉, 세계는 안정과 혼란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一治一亂) 곳이 아닌, 만물이 경쟁을 통해 변화하고 생존하며 진보하는 곳이었다. ‘경쟁의 세계’에서는 치열한 생존경쟁을 통해 생존과 도태가 결정된다. 이미 도태된 것은 다시 복원될 수 없으며 그냥 사라진다. 생존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진화하는 방법뿐이다. 옌푸는 서구 근대사상 가운데 우선 사회진화론에 착목한 이후, 이제 세계는 더 이상 ‘순환’하는 곳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작금의 중국은 더 이상 천하의 중심이 아니며, 중국의 현실은 안정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일시적 혼란 상태가 아니라 ‘진화’하지 않으면 멸망하여 사라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옌푸는 궁극적으로 망국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중국 지식인층의 객관적 현실 인식부터 촉구할 필요성에서 우선 중체서용론부터 비판하기 시작했다. 그는 “소라는 본체(本)가 있으면 무거운 짐을 옮기는 쓰임(用)이 있고, 말이라는 본체가 있으면 멀리 달리는 쓰임이 있듯이 본래 본체와 쓰임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인데 중체서용론은 중학을 본체로 삼고 서학을 쓰임으로 하니 애초부터 말이 되지 않는다고 그 논리적 한계를 지적한다(김영민 2021: 672-673). 또한 중체서용론의 본체인 중학(中學)의 세계관은 인간 역사에 관한 순환적 역사관을 수용하여 중국인이 ‘현실에 안주하는’ 습성을 배양하였다고 분석한다. 중국의 성인들이 보기에 생존과 목표 달성을 위한 열정적 추구가 장려되는 미래상은 안정을 해쳐 혼란으로 치닫고, 결국엔 사악한 세계로 향한다. 때문에 그들은 인간의 성취를 되도록 줄여 낮은 수준의 안정과 조화와 질서를 이루어 인간 잠재력의 실현을 위축시켰다. 즉, 생존경쟁이 혼란과 재앙으로 이어진다는 세계관 속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분수에 만족하도록 설득당하여 한정된 생존에 만족하고 토지를 경작하여 뒷사람에게 봉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Schwartz 2006: 99-101). 옌푸가 보기에 이러한 순환적, 복고적 세계관과 수동적, 소극적 인간관은 인간의 능력 발휘와 에너지 발산을 억제하고 현실 세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든다. ‘유교적 도’가 영원한 이치로 작동하는 ‘도불변(道不變)의 세계’에서 어떠한 혼란과 위기도 다 일시적인 것이므로 곧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체서용론 비판 이후 옌푸는 세계는 ‘조화와 불변의 세계’가 아니라 ‘경쟁과 도태의 세계’라는 것부터 알릴 필요가 있었다.

중국의 자강보전을 피하고 지식인의 의식을 새롭게 하기 위한 ‘서구 근대 사상 번역프로젝트’의 첫 번째 선택은 사회진화론을 다룬 『천연론』 번역이었다. 옌푸가 『천연론』 번역 실천을 통해 서구 사상의 사회 유행원리로서 사회진화론을 소개한 의도는 분명했다. 그는 망국의 위기에 직면해서도 세상의 변화를 인지하지 못했던 유교적 지식인에게 세계는 이제 ‘조화의 세계’가 아닌 ‘경쟁의 세계’임을 알릴 필요가 있었다. 중국 전통에 결여된 경쟁과 발전이란 근대적 개념을 근대중국에 도입하여 이제 세계는 순환하는 것이 아닌, 움직이고 변화하는 곳임을 인식시켜야 했다. 즉, 『천연론』의 번역을 통해 순환론적 세계관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중국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자는 강한 메시지를 보내려고 했다. 중화제국이 열강에 의해 분할되어 망해가는 가운데, 옌푸는 중국이 살아남으려면 우선 주변 현실부터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식층에게 번역 실천을 통해 역설한 것이다.

옌푸의 『천연론』 번역 실천은 망국적 상황과 지식인의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주체적 선택이었다. 옌푸는 중화제국 체제가 붕괴하고 중국이 열강에 의해 분할되는 전대미문의 위기 국면에서, 새로운 인식 전환이 절실했던 중국 사회의 현실적 수요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고심한 끝에 서양의 사회진화론을 소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처음부터 문제의 핵심이 낙후된 군사기술이나 경제발달이 아닌 중국사회의 유행원리에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서구의 근대사상이 제시하는 유행원리 가운데 사회진화론이 중국의 현실을 명쾌하게 설명해주는 동시에 자강구국에 적합한 정신적 무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천연론』 번역을 통해 중국사회에 적극 소개하였다. 사회진화론을 통해 생존경쟁과 적자생존이 적용되는 국제질서의 냉엄한 현실을 중국사회에 전달하여 지식인층의 현실 인식 전환을 도모하고자 했다. 물론 이는 궁극적으로 중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모두가 적극 분발하여 자강을 도모해야 한다고 호소하기 위함이었다. 그가 판단하기에 자강구국을 위한 중국의 개혁은 군사적 힘과 같은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서구사상 수용을 통한 새로운 인식 전환과 같은 근원적인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했다.

요약하자면, 옌푸는 자강구국이라는 궁극적 목표 하에 지식인층의 인식 전환을 도모하고자 번역을 실천적 글쓰기로 간주하고 이에 주체적으로 착수한 것이다. 옌푸의 『천연론』 번역 작업은 단지 서양 지식을 소개하는 지적 행위가

아닌, 중국의 근대화 과제 실현을 위한 사회적 실천이었다. 옌푸의 『천연론』 번역 실천에는 서구 사상의 사회진화론을 토대로 하여 구망도존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실현하려는, 근대중국의 개혁사상가로서의 주체적 의지가 명확하게 배어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천연론』 자서(自序)에 단적으로 드러나 있다.

혁슬리가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스펜서의 방임주의에 따른 지엽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그의 논의 중에는 중국의 옛 사람들의 논의와 상당히 부합하는 면도 있다. 혁슬리의 요지는 또한 자강을 이루고 종족을 보존하는 일에 대해 자세히 반복해서 다루고 있다(양일모, 이종민, 강중기 2008: 36).

3.2.2 『천연론』 번역 실천의 ‘독창성’

『천연론』은 영국의 사회학자이자 생물학자인 혁슬리의 강연집 『진화와 윤리(Evolution and Ethics- The Romanes Lecture(1893) and Prolegomena(1894))』를 저본으로 삼은 번역서이지만 두 명저의 내용 구성은 완전히 판이하다.

『진화와 윤리』의 서두는 영국의 구전 동화 『책과 콩나무』로 시작하면서 우주의 모든 생물은 콩나무의 콩처럼 생존경쟁을 통해 성장과 사멸을 반복한다는 자연계의 순환적 진화론을 소개한다. 여기서 진화는 발달과 퇴행의 의미를 모두 지닌다. 비교적 단일한 상태에서 비교적 복잡한 상태로의 점진적 변화를 뜻하기도 하고 비교적 복잡한 상태에서 비교적 단일한 상태로 변형되는 과정을 가리키기도 한다. 인간사회 역시 우주의 운행원리인 진화론의 지배를 받는다. 인간도 기타 동식물처럼 생존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생존 경쟁 과정에서 생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자연적으로 도태된다.

하지만 혁슬리는 자연계와 인간사회를 구분하여 인간사회 내부의 생존투쟁이 억제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인간이란 종은 자신의 이익을 끈질기게 추구하고 놓지 않으려는 자기주장(Self assertion)이 그 어떤 종보다 강하다. 인간사회 역시 문명사회로 진화했음에도 자신이 성장해온 사다리를 냉혹하게 걷어

1) 번역문은 양일모, 이종민, 강중기가 번역한 한국어 번역본 천연론의 번역문을 요약하여 인용한 것이다. 동성파(桐城派) 고문 특유의 난해한 문장을 한국어로 옮긴 선학들의 번역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

차 버리는, 추악한 경쟁자가 아름다운 공주보다 많은 곳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려면 그 발전을 저해하는 무한한 생존경쟁을 억제하여 인간의 자기주장 및 사욕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즉, 혁슬리는 『진화와 윤리』에서 진화보다 윤리에 중점을 두어, 자연계와 구별되는 인간사회의 윤리적 실천을 주장한다. 그는 인간사회의 진정한 진보는 무위(無爲)의 우주과정을 유위(有爲)의 윤리과정으로 대체하는 것이며, 이는 인간사회를 윤리적 인간이 생존에 적합한 사회로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윤리과정의 본질은 자기주장의 억제인데, 이는 인간의 자기주장은 자연계에 대항하여 인간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이지만, 사회 안에서 아무런 통제 없이 발산하도록 내버려둔다면 인간사회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인다. 『진화와 윤리』의 핵심 주장을 요약해보자면 다음의 인용이 명시하듯 자연계의 생존경쟁 원리와 차원이 다른, 인간사회의 윤리적 실천 필요성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 속의 인간들 역시 우주 과정의 지배를 받습니다. 다른 동물들처럼 끊임없이 번식을 진행하고 생존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격렬한 경쟁을 벌입니다. 자기주장이 가장 센 최강자는 최약자를 짓밟아버립니다. 그러나 사회 진화에 끼치는 우주 과정의 영향력이 클수록 그 문명은 더욱 원시적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사회 진보는 매 단계마다 존재하는 우주 과정을 억제하여 이른바 윤리 과정으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윤리 과정의 목표는 주어진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가장 훌륭한 사람들의 생존입니다. (중략) 윤리적 실천은 무자비한 자기주장을 대신하여 자기억제를 요구하고, 모든 경쟁자를 밀어내거나 짓밟는 대신에 개개인이 자신의 동료들 존중하고 도와줄 것을 요청합니다. 사회적 이익을 향유하는 자는 누구나 그것을 수고스럽게 창조한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간직해야 합니다. 법과 도덕적 교훈은 우주 과정을 억제하고, 공동체에 대한 개개인의 책임을 환기시키는 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이종민 2012: 99-100).

번역서 『천연론』은 저본 『진화와 윤리』와 완전히 상이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옌푸는 다윈(Charles Darwin)의 진화론, 스펜서의 사회진화론, 혁슬리의 주장 및 장자(莊子), 순자(荀子) 등 고대 중국 사상가의 학설을 종합하여 『천연론』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펼친다. 『천연론』은 옌푸가 자유롭게 취사선택한 전술

한 내용 및 옌푸 자신의 주장과 관점이 들어간 해설(復案)으로 구성되어 있다. 『천연론』 역시 서두에서 생존경쟁(物競) 및 자연도태(天擇)의 진화론을 소개하며 이를 천연(天演)이라는 개념으로 명명한다. 천연은 영어의 진화(evolution)의 번역어로서 세계가 운행하는 모습(天之所演者)을 나타내며 자연과 인간사회를 포함한 세계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천(天)은 인간사회를 포함하여, 스스로 생성하고 변화하는 천지만물을 나타내며 연(演)은 드러냄, 흐름, 변화 등을 의미한다. 하지만 『천연론』의 주요 내용은 스펜서의 사회진화론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진화론은 자연계의 진화론을 인간사회에 적용한 것으로, 인간사회 역시 생존경쟁, 자연도태, 적자생존, 우생열패의 원리로 진화한다는 것이 요지이다. 옌푸는 『천연론』에서 사회진화론의 생존경쟁 및 적자생존 원리를 반복해서 강조하며, 생존경쟁 능력이 떨어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어 사라지므로 사회의 결속(合群)과 종족의 보존(保種)을 호소한다. 즉, 우생열패 및 약육강식의 냉혹한 국제질서에서 중국이 망국멸종의 위기를 헤쳐나가려면 합군보종(合群保種)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전술하였듯, 옌푸는 헉슬리의 원서를 번역하면서 원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전달한 것이 아니라 중국이 처한 상황에 맞추어 책의 내용을 자유롭게 구성하였다. 또한 중국 고전에 대한 자신의 해박한 지식까지 동원하여 서구의 학설을 중국의 언어로 소개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스펜서의 주장과 헉슬리의 주장을 각각 선택적으로 수용하였다. 이 경우 주요 기준이 된 것은 19세기 후반 존망의 위기에 처해 있던 중국의 현실이었다. 옌푸는 자연계의 생존경쟁 및 적자생존의 진화원리가 인간사회에도 적용된다는 스펜서의 사회진화론을 수용하면서 그의 생존경쟁에 대한 낙관주의적이고 자유방임(任天)적인 입장을 다음과 같이 옹호한다.

헉슬리의 이 책의 요지는 생존경쟁이 혼란의 근원이며, 인간사회는 결국 인구과잉으로 궁지에 몰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스펜서와 상반된다. 스펜서는 언제 도달할지 알 수는 없지만 인간사회가 이상적인 정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중략) 인구가 늘어나 부양할 수 있는 식량을 초과하는 상황이 바로 사람들의 기술과 지식 및 자치능력을 진보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그러한 능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보하지 않을 수 없으며, 언제나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진보가 이루어

진다(양일모, 이종민, 강중기 2008: 116-118).

하지만 옌푸는 『천연론』에서 헉슬리의 윤리적 주장을 전혀 수용하지 않는다. 헉슬리는 『진화와 윤리』에서 인간사회의 생존경쟁을 무조건적으로 긍정하는 당시의 주장을 광신적 개인주의(fanatic individualism)이라 비판하고, 인간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자기주장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옌푸는 대신 헉슬리의 윤리적 실천 주장을 인간의 작위성을 강조하는 “승천(勝天)의 개념으로 수용하여 다음과 같이 생존을 도모하기 위한 인간의 능동적 투쟁을 강조한다.

사람이 생존을 피하려면 반드시 재능과 사고력을 발휘하여 생존을 방해하는 것과 투쟁해야 한다. 패배한 자는 날로 쇠퇴하고 승리한 자는 날로 번창하게 되는데, 승리한 자들은 다름 아니라 지혜와 도덕과 힘이라는 세 가지가 모두 뛰어났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가 뛰어나게 된 후에야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확대되며 생존의 이치가 완비되는 것이다(양일모, 이종민, 강중기 2008: 119-120).

요컨대, 옌푸는 『천연론』에서 스펜서와 헉슬리의 견해를 부분적으로 선택하여 생존경쟁의 자연계의 운행원리가 인간사회에도 적용된다는 사회진화론을 소개하는 동시에, 적자생존의 세계에서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 능동적인 투쟁을 전개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경쟁의 원리가 시대의 대세임을 중국사회에 알리고, 중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적극 분발하여 자강을 도모해야 한다고 호소한 것이다. 구국의식에 휩싸인 옌푸의 지식인으로서의 절박한 위기 의식은 다음과 같은 그의 해설에도 잘 드러난다.

아! 어찌 동식물만 그러하겠는가? 가령 본토에 있는 것이 생존에 가장 적합하다면, 왜 저 아메리카 대륙의 인디언과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이 서양인과 교류한 이후 해가 갈수록 감소하겠는가? 생존경쟁이 치열해지면 패배한 자는 수가 날로 줄어들 것이니, 인구가 많다고 어찌 안심할 수 있겠는가! 어찌 안심할 수 있겠는가! (양일모, 이종민, 강중기 2008: 72)

옌푸의 『천연론』 번역 실천의 ‘독창성’은 이처럼 자신의 특수한 사회적 담

론을 전달하기 위한 ‘창조적 오역’으로 요약해볼 수 있다. 옌푸는 생존위기에 처한 중국사회의 합군보종을 호소하기 위해 헉슬리의 『진화와 윤리』를 번역하면서 스펜서의 사회진화론을 기본 입장으로 삼았다. 또한 스펜서의 낙관주의적인 견해를 비판한 헉슬리의 견해를 ‘왜곡’하면서 중국의 현실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신의 견해와 주장을 적극 개진하였다. 그는 처음부터 확고한 전략적 의도를 가지고 원서의 내용을 자유롭게 취사선택하였으며, 『천연론』의 내용 역시 자유롭게 재구성하였다. 결국 옌푸는 헉슬리와 스펜서의 견해를 종합하여 자연계와 인간사회의 운행원리를 새롭게 제시하고 인간의 능동적 역할을 중점적으로 강조하고자 했다. 나아가 중국의 운명 또한 경쟁과 도태라는 냉혹한 진화의 원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현실 인식 속에서 『천연론』 번역을 필두로, ‘동아시아의 병부’로 전략한 중국이 열강의 강력한 힘에 맞서 다시 일어날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했다. 그래서 청조의 지식인층을 향해 『천연론』을 제시한 것이다. 『천연론』 번역 실천의 ‘독창성’ 사례는 번역이 충실성 및 정확성의 기준에서만 재단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번역은 번역이 수행되는 사회적 공간에서 특수한 사명을 부여받고 특수한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것이다.

3.3 『천연론』 번역 실천의 탈식민주의적 고찰

전통과 근대가 대립하던 20세기 전후의 격동의 근대중국에서 청말의 개혁사상가 옌푸는 지식인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서구 근대사상 번역 활동에 전력하였다. 그는 철학,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 논리학 등을 망라하는 서구 사상의 명저들을 체계적으로 번역하여 근대중국에 소개하였다.

‘서구 근대사상 번역프로젝트’의 출발점이었던 『천연론』 번역은 당시 지식인 관료층의 안이한 현실 인식에 경종을 울리고자 기획되고 수행되었다. 『천연론』 번역 실천은 유교적 지식인층이 중국이 처한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도록 진화론적 세계관을 소개하기 위함이었으며, 이는 중국 근대화 과정의 변법유신 운동에 사상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옌푸는 『천연론』을 번역하면서 스펜서와 헉슬리의 사회진화론을 선택적으로 절충하였을 뿐만 아니라, 번역가 자신의 평가와 해석을 적극 개입시켜 자신의 주장이 담긴 대항 담론을 제시한 것이다.

옌푸의 『천연론』 번역의 이러한 주체성과 ‘독창성’ 특성은 탈식민주의 맥락

에서 정치사회적 행동주의자로서의 번역가의 사회적 실천에 부합한다. 옌푸는 당시의 중국 지식인에게 자강구국을 호소하고자 『진화와 윤리』를 ‘창조적으로 오역’하여 『천연론』을 통해 서구의 사회진화론 사상을 소개하였다. ‘천하를 먼저 근심하는’ 유교적 지식인의 정체성을 지녔던 옌푸는 당시 유교 지식인의 지배 관념이었던 중체서용론의 세계관을 해체시키기 위해 자신이 갖는 견해가 사회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번역을 사회적 실천으로 간주하고 『천연론』 번역에 매진했다. 그에게 『천연론』 번역은 사회 변혁의 수단이었으며 이로써 그는 사회 개혁에 전력하는, 주체적인 행동주의자로 거듭났다.

옌푸의 주체적 번역 실천은 나아가 ‘독창성’이 풍부한 번역으로 이어졌다. 옌푸는 명확한 목표를 지니고 원서를 ‘의도적으로 오독’하면서 스펜서의 낙관주의적 사회진화론을 비판한 헉슬리의 『진화와 윤리』를 스펜서의 입장에서 번역, 소개하였다. 그는 원서에 대한 독자적 이해 및 비판적 성찰 능력을 바탕으로 번역되어야 하는 텍스트의 내용을 독자적인 시각으로 선별하는 가운데, 번역가 자신의 사회적 메시지가 관철된 번역을 제시하였다. 탈식민주의 맥락의 각도에서 옌푸의 『천연론』 번역 실천은 대항 담론을 구현하기 위한 전략적 행동의 일환이 되어 더없이 ‘자유롭게’ 수행되었다. 지배 담론을 극복하여 최종적으로 대항 담론을 구축하기 위해 번역가 자신의 독자적인 생산 활동으로 전개된 것이다. 번역가 자신의 주체적 의도에서 기획되고 수행된 『천연론』 번역 실천은 번역을 대체로 파생적인 재생산활동으로 간주하는, 번역의 전통적 ‘경계’를 벗어나 있다 할 것이다.

1890년대 격동의 근대중국에서 『천연론』 번역 실천을 통해 서구의 사회진화론을 적극 수용하였던 옌푸에게 번역의 역할과 의미는 지금과 많이 달랐다고 볼 수 있다. 옌푸는 중국사회의 개혁을 위해 서양 근대사상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번역을 중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회 변화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천연론』 번역 실천을 통해 유교 문명의 순환적 세계관을 해체시키려고 했다. 그는 번역이 단지 외부 문화와 사상을 수용하는 지적인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용자로 하여금 주변 현실을 자각하게 하는 사회적 실천일 수 있음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번역을 행동주의자 번역가의 사회적 실천이자 독자적인 생산 활동으로 확장시키는 탈식민주의 맥락의 번역 관점에 명백히 부합한다.

4. 결론

본고는 청말의 개혁사상가 옌푸의 『천연론』 번역 실천을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천연론』 번역은 번역가 자신이 주체적 의지를 가지고 번역 저본을 ‘창조적으로 오역한’ 독자적 생산 활동이었다. 옌푸는 자강구국이라는 중국의 현실적 수요와 자신이 설정한 지식인층의 세계관 전환의 필요성이라는 전략적 목표에 맞추어, 번역 저본 『진화와 윤리』의 내용을 자유롭게 취사선택하고 개조하면서 생존경쟁 및 적자생존의 진화법칙을 중점적으로 소개하였다. 그는 내우외환의 멸망위기에 놓인 근대중국에서 번역을 사회개혁 수단으로 삼아,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번역하지 않거나 개조하였고 전략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과감하게 수용하여 번역하였다. 이는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사회적 행동주의자의 주체적 번역 실천으로 설명될 수 있다.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번역은 일반적으로 지배 담론의 동요에 기여하는 사회적 실천이자, 행동주의자 번역가의 독자적 생산 활동으로 전제된다. 번역은 더 이상 충실성과 정확성의, 파생적인 재생산 활동에 머무르지 않는다.

본고에서 논증한 옌푸의 『천연론』 번역 실천의 주체성 및 ‘독창성’ 특성은 무엇보다 번역이란 독자적인 생산 활동에서 번역가 자신의 능동성과 가시성을 부각시킨다. 옌푸는 막중한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번역을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번역 실천에서 무엇에 특히 주의하고 주목해야 하는지 자문하고 궁구한 이후 번역 작업에 착수하였다. 옌푸의 독자적 번역 실천 사례는 복잡다단한 번역현상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줌으로써 번역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확장될 필요성을 시사해준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강지혜 (2013) 경험적 연구로서의 번역사례연구: 방법론적 고찰, 『번역학연구』 14(2): 7-37.
 김상원 (2006) 『중국의 문화변동과 현대문학』, 서울: 학고방.
 김소정 (2008) 번역을 통해 본 근대중국: 임서의 서양소설번역을 중심으로, 『중

국어문학』 52: 259-286.
 김영민 (2021) 『중국정치사상사』,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김윤희 (2002) 「세계관이 된 진화론: 진화론의 중국적 변용 고」, 『동아문화』 40: 131-162.
 김창규 (2015) 양계초의 중국적 근대 기획, 『중국사연구』 97: 314-340.
 김혜림 외 옮김 (2011) 『중국번역사상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王秉欽, 中國翻譯思想史).
 박종성 (2014) 『탈식민주의에 대한 성찰: 푸코, 파농, 사이드, 바바, 스피박』, 파주: 살림출판사.
 박홍규, 조계원 (2012) 옌푸와 번역의 정치: 『천연론』에 담긴 천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6(4): 29-51.
 배경한 외 (2019) 『중국 근현대사 강의』, 서울: 한울아카데미.
 신성곤, 윤혜영 (2019)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 서울: 서해문집.
 양일모 (2007) 중국의 근대성 문제와 『천연론』, 『중국학보』 53: 401-423.
 양일모 (2008) 『옌푸: 중국의 근대성과 서양 사상』, 파주: 태학사.
 양일모 (2010) 번역과 개념으로 본 중국의 근대성: 유신과 혁명을 중심으로, 『동양철학』 33: 174-195.
 양일모, 이종민, 강중기 옮김 (2008) 『천연론』, 서울: 소명출판 (嚴復, 天演論).
 우남숙 (2011) 사회진화론의 동아시아 수용에 관한 연구: 역사적 경로와 이론적 원형을 중심으로,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10(2): 117-140.
 우남숙 (2012) 허버트 스펜서와 옌푸: 지, 덕, 체의 사상적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6(5): 25-49.
 이영옥 (2019) 『중국근대사』 서울: 책과함께.
 이종민 옮김 (2012) 『진화와 윤리』 부산: 산지니(Thomas Huxley, Evolution and Ethics).
 이해경 (2007) 『량치차오: 문명과 유학에 얽힌 애증의 서사』, 파주: 태학사.
 임춘성 옮김 (2005) 『중국근대사상사론』, 파주: 한길사 (李澤厚, 中國近代思想史論).
 조경란 (1994) 『진화론의 중국적 수용과 역사인식의 전환 - 엄복, 양계초, 장병린 노선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경란 (2015) 『20세기 중국 지식의 탄생』, 서울: 책세상.
- 조관희 (2013), 『조관희교수의 중국현대사 강의』, 서울: 궁리.
- 최경옥 (2012) 『번역과 일본의 근대』, 파주: 살림출판사.
- 최민자 (1998) 양계초의 변법사상과 개혁운동, 『한국정치학회보』 30(1): 60-76.
- 최성희 (2015) 후기식민주의 텍스트의 번역 양상 연구: 제임스 조이스의 『젊은 예술가의 초상』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17(1): 209-235.
- 최효선 옮김 (2006) 『부와 권력을 찾아서』 서울: 한길사 (Benjamin Schwartz, In Search of Wealth and Power).
- 홍석표 (2009) 『중국현대문학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Bassnett, Susan (2014) *Translation*, London & NewYork: Routledge.
- Cheung, Martha (1998) 'Translation and Power: A HongKong Case Study', *Perspectives* 6(2): 259-274.
- Dubbati, Barkuzza. & Haneen Abudayeh (2017) 'The Translator as an Activist: Reframing Conflict in the Arabic Translation of Sacco's Footnotes in Gaza', *The Translator* 23(2): 1-19.
- Gamal, Ahmed (2012) 'Postcolonial Translation as Transformation: Ahdaf Soueif's I Think Of You', *The Translator* 18(1): 101-118.
- Munday, Jeremy (2009)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 Theories and Applications*, London and NewYork: Routledge.
- Pym, Anthony (2010) *Exploring Translation Theories*, NewYork: Routledge.
- Sánchez, Dolores. (2011) 'Translating Science: Contexts and Contests-On the Translation of a Misogynist Scientific Treatise in Early Twentieth Century Spain', *The Translator* 17(2): 325-348.
- Tymoczko, Maria (1999) *Translation in a Postcolonial Context*, Manchester U.K: St. Jerome Publishing.
- Tymoczko, Maria. (2000) 'Translation and Engagement: Activism, Social Change and the Role of Translation in Geopolitical Shifts', *The Translator* 6(1): 23-47.
- Tymoczko, Maria (2007) *Enlarging Translation, Empowering Translators*,

- Manchester U.K: St. Jerome Publishing.
- Venuti, Lawrence (1995) *The Translator's Invisibility*, London: Routledge.
- 劉梁劍 (2019) 嚴復造天演論: 中國現代思想生成的一介面向, 『哲學分析』 10(5).
- 尙偉 (2019) 『嚴復政治思想論析』, 『西部學刊』 5月號.
- 王金珊 (2007) 嚴復: 先進的中國人? 時代的落伍者?, 『語文學刊』 2月號.
- 王曉丹 (2012) 『翻譯史話』, 社會科學文獻出版社.
- 王越 (2016) 愛國救國: 晚清留學生道路之選擇: 以嚴復爲例, 『文教資料』 第15期
- 吳慰藍 (2016) 『嚴復傳』, 北京時代華文書局.
- 吳熒麗, 李艷 (2018) 「嚴復與林緒: 中國近代兩大翻譯家的對比」, 『開封教育學院學報』 38(9).
- 張文清 (2005) 嚴復的翻譯目的與選擇, 『文教資料』 第30期

[Abstract]

Translator in postcolonial context

— Focused on Yan Fu, an enlightenment thinker in the late Qing dynasty and his 『TianYanLun』, a translational text

Lee, Ji-Young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paper examines the translation practice of Yan Fu(1854-1921), a Chinese enlightenment thinker and translator in the late Qing Dynasty, predicated upon a theoretical framework of translation in postcolonial context. It mainly discusses Yan Fu's 『TianYanLun(天演論, 1898)』, which translated Thomas Huxley's 『Evolution and Ethics(1894)』.

Yan Fu published a Chinese translation entitled 『TianYanLun』to transform the Confucious view of the world of the times in order to appeal to China's intellectuals for China's national self-strengthening in the late 19th century. Yan Fu mainly introduced Herbert Spencer's social Darwinism in 『TianYanLun』. Spencer's social Darwinism provides that the struggle for existence, natural selection and survival the fittest are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human society. Huxley argued that the struggle for existence and self-assertion need to be restrained to ensure continuity of human society in 『Evolution and Ethics』. He thought that an excessive struggle for existence can lead to a destructive effect and called for an ethical behavior in human society. However, these aspects were ignored and modified in Yan's comments in 『TianYanLun』. Yan Fu was in favor of Spencer's optimistic vision of the struggle for existence in 『TianYanLun』. Yan Fu was desperate to appeal to China's intellectuals so that they would have an objective understanding of the situation facing endangered China. He introduced a world of evolution to China by explaining a linear

view of history as a counter-discourse. He criticized a circular view of history which claims "period of good order followed by one of confusion(YiZhiYiLuan, 一治一亂) in the Confucian worldview, while searching for the wealth and power of China to make a modern China.

Yan Fu's autonomous and inventive translation practice corresponds to the role of a postcolonial translator as a social activist. His role as an activist and translator represents that of the postcolonial translator who is publicly engaged in the construction of discourses. Yan Fu's postcolonial stance is conspicuously reflected on typical translation tactics in postcolonial context, in the double process of deconstruction of dominating discourse and reconstruction of counter-discourse. Yan Fu's autonomous and inventive translation practice challenges the conventional notion and general perception of translation in translation theory, and raises the need for a deep understanding of translation.

▶ Key Words: translation in postcolonial context , Translator in postcolonial context, Yan Fu, Evolution and Ethics, TianYanLun

▶ 주제어: 탈식민주의 맥락에서의 번역, 탈식민주의 맥락에서의 번역가, 옌푸, 진화와 윤리, 천연론

이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중과 특임강의교수

zhiying2003@hanmail.net

관심분야: 번역의 사회문화적 맥락 및 수용, 번역과 이데올로기, 번역과 동아시아의 근대

논문투고일: 2021년 5월 9일

심사완료일: 2021년 5월 28일

게재확정일: 2021년 6월 24일